

섬의 수도 선언...2028년 섬 엑스포 유치전 본격화

목포·완도·신안·진도 섬포럼 개최 섬벨트 투어·UCC 공모전 등 확산 소외의 땅 오명 벗고 새 도약 준비

목포시와 완도·신안·진도군 등 서남권 섬벨트 지자체가 '섬의 수도'를 선언하는 등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이들 서남권 섬벨트 4개 시·군은 최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2021 서남해안 세계 섬 포럼'을 갖고 '섬 엑스포' 유치 붐 조성에 나섰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남 서남권이 '대한민국 섬의 수도'임을 선포하고, 지속가능한 섬발전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서남권 4개 시·군 섬벨트는 섬과 관련한 풍부한 인적·지적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섬 발전을 주도해 온 축적된 경험과 감정이 있다"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한국의 섬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또 ▲섬의 가치와 경쟁력 향상 ▲섬 보전 ▲섬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개선 ▲한국 섬의 위상과

인지도 제고 등에 대한 의지를 선언문에 담았다. 서남권은 전남도 2165개 섬 중(전국 65%) 1380개를 보유하고 있다. 해양과 대륙을 잇는 중계 기능의 중추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962년 매일신보에서는 전남 서남권을 '섬의 수도'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 동안 소외와 고립, 낙후의 상징으로 치부되던 섬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도약을 위한 움직임도 분주하다.

목포시와 완도·신안·진도군 등 4개 시·군은 지난해 세계 섬 엑스포 유치와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남해안 섬벨트' 협약식을 가졌다.

일환으로 목포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2028 세계 섬엑스포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섬 엑스포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2028년 섬·관광 관련 국제기구(UNWTO 등)가 승인하는 국제행사를 공동 개최하고, 장기적으로는 2045년 국제박람회 기구(BIE) 공인 섬 엑스포를 유치한다는 복안이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섬 벨트 권역별 투어, 섬 음악회 등을 비롯해 섬·바다를 주제로 하는 UCC 공모전을 개최해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국내·국제 섬 학술대회를 정례화하고, 유치추진



서남권 섬벨트 4개 시·군 관계자들이 지난 17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21 서남해안 세계 섬 포럼에서 전남 서남권이 '대한민국 섬의 수도'임을 선포했다. <목포시 제공>

진위원회를 전국 단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추진위 산하 실무기획위원회 구성과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형 정책과 공동문제 발굴, 4개 시·군 순회홍보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섬 정책의 컨트롤 역할을 할 한국섬진흥원 유치에 이어 섬 엑스포 유치를 통해

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섬들의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유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명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완도군, 코로나 대응 인력 '마음 쉽' 프로그램 진행



완도군이 신지면 해양기후치유센터 일원에서 코로나19 대응 인력·자가 격리 경험자 등 15명을 대상으로 '마음 쉽'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정신 건강 고위험군에게 스트레스 관리 능력과 신체 활동을 높여 심신 안정과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뇌파 분석으로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우울증 자가 검사(PHQ-9)를 한 후 결과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가와 상담을 한다. 수면 베개 만들기, 음악 감상을 통한 음악 치료 시간을 가졌다.

태양광, 해풍, 에어로졸, 파도 소리 등을 즐기며 걷는 해변 노르딕워킹과 '노래하는 그릇'이라는 싱잉보울(singing bowl) 명상 체험(사진) 등 해양치유도 체험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었지만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활동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 대응 인력의 정신적 피로도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

영암국유림관리소

영암국유림관리소가 '2021년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11월 숲가꾸기 기간을 맞아 숲가꾸기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지역 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서다.

산림청은 봄철에 심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고 숲을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한 달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행사에서 숲가꾸기의 효과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숲가꾸기 작업요령에 따라 가지치기 작업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숲가꾸기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마련해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천 기자 jbh@kwangju.co.kr

개도국 관광부처 공무원, 신안군 벤치마킹

네팔·필리핀 등 10명 퍼플섬 방문

신안군이 22일부터 이틀간 한국의 관광산업을 배우기 위해 개발도상국 관광부처 공무원들이 신안군의 퍼플섬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장 방문에는 네팔과 캄보디아, 필리핀, 페루 등 개발도상국 10명의 관광부처 공무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관광 분야 공적개발 원조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주요 관광지를 답사하고 한국의 관광산업을 벤치마킹한다. 현장 답사를 통해 신안군의 섬 관광정책과 지역경제 발전사례 등을 배워 갈 예정이다.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이번 행사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다.

신안군의 퍼플섬은 호남권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인정한 관광정책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2021-2022년 한국인은 물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꼭 가봐야 할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선정됐다.

반월·박지도는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선정하는 최우수 관광마을을 대한민국 후보로 선정됐으며, 오는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2021 세계관광기구 총회'에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한국 관광의 별 최종 후보에도 선정되는 등 신안군이 국내 최고의 관광지로서 급부상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각 섬별 특성을 고려한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실현해 가고 있는 신안군의 정책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진도읍 남문로 한 상가 벽면이 시와 그림으로 장식돼 있다. <진도 남문로 상권 활성화 추진단 제공>

진도읍 남문로상권 '시의 거리' 탈바꿈

'상권 르네상스 사업' 마무리

진도읍 남문로 상가가 '시의 거리'로 변신해 확산됐다.

진도군에 따르면 군이 '진도읍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추진 중인 옛 점포 외부 경관 개선이 최근 마무리 됐다.

이번 사업은 침체된 진도읍 남문로 상가의 상권 회복을 위해 상권 초입에 위치한 100여년 전 건축된 목조 점포 상점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진도읍 구도심 지역의 관문인 진도읍 철마길2, 옥주길17 지번 일대의 11개 점포의 임차·임대인의 동의와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진도 전통의 시를 활용한 진도 시의 거리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테마거리로 조성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도아리랑을 연상하게 하는 삼색과 한글, 진도를 대표하는 시를 접목해 조성한 시의 거리는 상권 테마와 어울리는 디자인을 적용해 상인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낙후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진도읍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 까지 5개년에 걸쳐 국비와 지방비 등 6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비 공모사업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목포해경, '요소수 밀수' 집중 단속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상을 통한 요소수의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국내 요소수의 수급 불안정으로 가격이 급등, 요소수의 해상 밀수 등 관련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해경은 요소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어선 등을 통한 공해상 환적 ▲국제여객선 화물 ▲화물선 컨테이너 ▲밀수된 요소수 불법 유통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단속반을 편성하고 범죄정보

수집과 단속활동에 나서는 한편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을 통한 밀수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관련 범죄행위 발생시 해양경찰에 신고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중요 국제범죄 신고자에게 사안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